



08-39 (통권 217호)
2008.10.02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미국 긴급경제안정화법안(EESA)
- 최근 외환보유액 감소세

경영 노트

- 美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확산

사회 트렌드

- IP세대

차이나 리포트

- 신조어를 통해 본 중국 소비 트렌드의 변화

저널 브리프

- 위기상황 타개하는 인사관리 5계명

洗心錄

- 혁신을 위한 창의성 개발

□ 미국 긴급경제안정화법안(EESA)

- 미국 금융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긴급경제안정화법안(EESA: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이 29일 부결되었으나, 10월 1일 상원에서 수정안이 통과되어 하원에서의 승인이 남음
 - 미국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9월 29일 구제금융법안을 상정하였으나, 금융기관들의 탐욕으로 인한 부실을 세금으로 메워야하는 것에 대한 불만 여론 등으로 인해 부결됨
 - 이번 구제금융은 7,000억 달러 규모이고, 목적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금융회사의 부실 채권을 인수하기 위한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수정안은 예금자 보호와 세금감면, 회계 기준에서 시가 평가의 유예 등의 조항을 추가한 후 상원의 승인을 얻었고, 10월 3일의 하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 한편, 가능성은 낮지만 구제금융안이 부결된다면 정부가 금융회사들의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방법, 정책금리의 대폭인하, 현재 보유한 국채와 FRB의 발권력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한계 및 실효성에 의문

□ 최근 외환보유액 감소세

- 한국은행(10월 2일)에 따르면 9월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전월말보다 35.3억 달러 감소함
 - 9월 외환보유액은 운용수익 등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당국의 스왑시장 참여 규모 확대와 미 달러화의 주요국 통화 대비 가치 감소에 기인함
 - 외환보유액(2,397억 달러)는 세부적으로 유가증권이 90.6%(2,172억 달러), 예치금이 9.2%(220억 달러), IMF 포지션이 0.1%(3.4억 달러), SDR 0.04%(0.9억 달러), 금 0.03%(0.7억 달러)로 구성됨

- 외환보유액 상위 10개국 중 중국, 브라질, 홍콩을 제외한 나라는 8월중 외환보유액이 감소하였는데 한국의 감소폭(-43억 달러)이 가장 작은 수준

□ 美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확산

- 미국의 월가를 뒤흔든 금융위기가 제2차 세계 대전이후 소비의존 중심의 미국 실물경제에까지 위기를 몰고 오고 있음
 - 신용평가회사인 S&P의 조사 결과 올해 미국에서 지난 9월9일까지 57개 회사에서 453억 달러 규모의 부도가 발생 (* 전년도 22건 부도 발생)
 - 57개 사 중 45개가 비금융 기업으로 실물경기가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반증

-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대표적인 위기 기업들
 - 업종 중 자동차 메이커, 항공업체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자금난을 겪는 미국의 대표적 기업>

기 업	상 황
G M	- 월간 140억 달러에 이르는 영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신규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음
맥도널드	- BOA(뱅크오브아메리카)에 신규 대출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UAL (유나이티드에어라인)	- 고유가에 유동성 위기까지 직면하면서 파산 위기에 놓임 - 최고재무담당자(CFO) "Cash is King"이라 주장

자료 : *BusinessWeek* (2008.09.29)

-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화 되면서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미국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성장모델의 계획이 요구됨
 - 우리 기업은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와 자산의 가치 급락으로 인한 소비둔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대비한 비즈니스 모델의 수정이 불가피 함
 - 상대적으로 경기가 안정됐거나 경기 침체가 덜한 지역·국가로의 수출지역 다변화를 도모해야 함

□ IP세대*

- IP(Independent Producer)세대란 독자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생산자’의 개념이 강한 20대, 30대를 말함
 - 386세대 이상의 중장년 세대가 이념이나 구호의 집단적 추종자인 측면이 강하다면, IP세대는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생산자’의 개념이 강함

- IP세대는 영문 머리글자 I와 P의 다양한 조합으로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줌
 - 이들은 정보화사회의 단순한 정보 수용자에서 벗어나 손수제작물(UCC) 등을 통해 ‘정보 제공자(Information Provider)’로 떠오름
 - 인터넷 상의 ‘IP(Internet Protocol) 주소’는 이들에게 오프라인의 주민등록증을 능가하는 ‘사이버 신분증’임
 - 또 ‘재미’가 있으면 ‘열정’을 태우고(Interest & Passion), 외국어 능력과 다른 문화에 대한 유연성 등 ‘국제적 잠재역량(International Potential)’도 눈에 띈다

- 기성세대가 가지 않았던 길을 열어나가는 ‘혁신적 개척자(Innovative Pathfinder)’이면서 대학 시절부터 스스로 미래 인생을 설계하며 부(富)를 추구하는 ‘똑똑한 재테크(Interactive Portfolio)족’임
 - IP세대는 ‘만질 수 없는 소프트웨어 능력(Intangible Power)’을 지녔고, 일방통행식 정치참여에는 거부감을 보이지만, ‘상호작용하는 참여(Interactive Participation)’에는 월드컵 거리응원만큼 뜨거운 호응을 보임
 -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지만 그만큼 빨리 식는 ‘즉흥적 인간관계(Instant Partnership)’도 한 특징

- 대한민국의 21세기는 얼마나 많은 IP세대가 ‘세상의 변화를 자신의 발아래 놓고 즐기는’ 서퍼로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음

* 이 글은 <“난 창조자” 한국을 바꾸는 IP세대>(동아일보, 2008.09.30일자) 기사를 요약·정리한 것임

□ 신조어를 통해본 중국 소비 트렌드의 변화*

■ 최근 중국 소비시장의 특징

- 현재 중국에는 거대한 중산층 소비자 계층이 형성되고 있음
 - 1985년에는 중국 도시 인구 99%의 연평균 가처분 소득이 2.5만 위안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이 비율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듦
 - 5년내 약 1.5억 가구가 도시 중산계층에 편입될 예정
- 소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료보건, 주택, 교통통신, 문화교육 등에 대한 지출비중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현재 분야별 소비지출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의료보건 12%, 주택 11.7%, 교통통신 10%, 문화교육 9.7%로 나타남
- CSG(Credit Suisse Global) 은행은 2015년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주민의 소득증가율이 줄곧 GDP 성장률**에 뒤쳐져 왔지만 앞으로 GDP 성장률을 상당 부분 따라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도시주민 총소득의 성장속도는 향후 20년간 8%에 달할 것으로 내다봄

■ 소비 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중국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중국 언어생활실태조사」에서 나타남

- 최근 소비와 관련된 유희지향적인 종족을 가리키는 신조어가 많아지고 있음 (* 신조어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조)
 - 소비 행태 측면으로 보면, 버는 대로 소비하거나 과시하기 위한 지나친 소비와 이에 따른 내핍 생활을 표현하는 신조어가 특징적임
 - 주력 소비계층으로 20세 전후의 청소년층, 여성, 임산부가 부각

* 본 자료는 지식경제부의 「신조어로 알아보는 중국 소비시장 트렌드 변화」(2008.9.19)를 재정리

** 국가통계국은 최근 통계 수정작업을 통해, 지난 29년간 중국경제는 연평균 9.8% 성장했고, 지난 5년간은 연평균 10.8% 성장했다고 발표함

< 최근 중국에서 유행하는 소비 관련 신조어 >

신조어	의미
빠스허우 (80後)	1980년 이후에 태어난 17세~26세 사이의 신세대를 아우르는 신조어로, 중국의 주력 소비 계층으로 대두되고 있음
따뚜즈징지 (大肚子經濟)	‘따뚜즈징지’란 ‘큰 배(임산부) 경제’란 의미로, ’06년 결혼 증가, ’07년 황금돼지해, ’08년 올림픽 영향으로 출산이 급증함으로 인해 임산부의 소비파워가 막강해져 생겨난 말임
타징지 (她經濟)	‘타징지’란 여성을 일컫는 ‘她’와 경제가 합쳐진 신조어로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여성의 구매파워가 커져 특유의 경제계층과 경제현상을 형성하는 것을 말함
위에광주 (月光族)	‘위에광주’란 말은 패션잡지 「秀with」에 ‘월광여신’(月光女神)이란 말이 등장하면서 사용된 것으로 월급에서 저축은 하지 않고 모두 소비해 버리는 계층을 말함
쳐 누 (車奴)	‘쳐누’란 자가용 구입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최근 소득증대로 자동차 소비가 급증한 현상을 묘사함
팡 누 (房奴)	‘팡누’는 은행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후 대출금 상환 때문에 내핍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함
지에누 (節奴)	‘지에누’란 ‘명절의 노예’란 뜻으로 체면을 중시하는 일부 중국인들이 춘지에(春節, 설), 노동절(5.1), 국경절(10.1) 등 3대 명절에 과시성 소비로 인해 내핍생활을 하는 현상을 풍자
러훤주 (樂活族)	‘러훤주’란 로하스(LOHAS)를 중국어로 음차한 단어로, 건강과 친환경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을 지칭
라이샤오주 (賴校族)	‘라이샤오주’란 ‘학교(校)에 의지(賴)하여 사는 계층’이란 뜻으로 졸업 후에도 학교에 남아 취업이나 진학을 준비하는 세대를 말함
셔우지셔우 (手機手)	‘셔우지셔우’란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엄지손가락 근육 주변에 건초염이 생기는 현상을 말함

□ 위기상황 타개하는 인사관리 5계명*

- 회사가 위기에 처한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바로 인사관리임
 - 위기 때 인적자원의 이탈과 동요가 심해지면 사업위기가 가속화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후복구 기간도 길어져 인사관리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요구됨

■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5가지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

<한국의 대표 인사관리 전문가 10인이 제시한 관리 방안>

방 안	내 용
1.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라	노사가 위기 상황에 대해 같은 온도를 느껴야 하는 게 중요. 이는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가 최적의 방안
2. 개별관리를 통해, 핵심인재 유출을 최소화하라	20%의 핵심인력이 80%의 성과를 내는 ‘파레토 법칙’이 조직 내에 유효하므로 위기 때 핵심인재 유출을 최소화
3. 어려울수록 교육투자는 과감히 하라	위기 때 이전보다 적은 인력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해야 하므로 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교육투자는 필수적. 지속적인 젊은 피 수혈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
4. 하위인력을 적극 관리하라	회사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20%의 하위인력을 다독이고, 한편으로는 정리할 필요가 있음
5. 평상시 미리미리 명확한 인사평가체제를 갖춰라	잡음 없는 구조조정을 위해 평상시 명확한 인사제도 평가체제를 갖추는 것이 효과적

-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인사가 만사’라는 용어는 더욱 빛을 발하는 덕목이며, 경영자는 인사를 가장 먼저 챙겨야함
 - 직원들을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기업과 함께 나아가는 파트너의 관계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됨

* 이 글은 『매경이코노미』 (2008.10.1)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 재구성한 것임

□ 혁신을 위한 창의성 개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스티브 발머는 “고객을 만족시키고 경쟁사를 이기는 유일한 해법은 혁신밖에 없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혁신은 무엇으로 이를 수 있는가? 하버드비즈니스 리뷰는 사례 연구를 통해 혁신을 위한 창의력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과일주스 제조회사인 쿨버스트(CoolBurst)는 미국 남동부 지역 시장을 지배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매출과 수익이 정체되면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쿨버스트는 레보레도를 새로운 CEO로 선임하며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자 했다. 레보레도는 쿨버스트의 가장 큰 문제점을 그의 아들 알폰스가 경쟁사의 음료수를 선호한다거나 6개의 신설회사가 경쟁에 합류했다는 사실이 아닌, 직원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한 예로 쿨버스트는 추후에 가장 창의적인 직원으로 평가받았던 샘 켄킨스를 해고한 바 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엉뚱한 그를 사고몽치로 생각했다. 그러나 레보레도는 창의적 재능이 쿨버스트의 재건에 가장 필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켄킨스의 이직을 회사의 큰 손실로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켄킨스의 일 처리방식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할 수 있을까? 직원들을 창의적으로 육성할 방법은 무엇인가? 새로운 자유를 많이 부여하라.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충분한가? 한 순간에 창의성이 완성될 수는 없어도 사고능력을 창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들은 개발될 수 있다. 관심을 끄는 흥미로운 문제에 자발적인 의욕을 가지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느낄 수 있는 문화를 정립하여야 한다. 직원들에게 보장되는 자유도 그러한 문화 범위 내에서 허락될 수 있을 것이다. 근무시간의 15%를 아이디어 개발에 쓸 수 있다는 3M의 유명한 ‘15% 룰’과 같은 사례는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낙원의 파랑새는 자신을 잡으려 하지 않는 사람의
손 위에 날아와 앉는다.”**

- 존 베리 -